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 절에 가면 편인한 이유는



<1> 왜 절인가

늘 신사복에 넥타이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어떤 은퇴 목사 한 분이 나에게 사진을 배운 적이 있다. 한번은 경북 황송의 주왕산(주왕산, 얼마나 멋진 산인지!)으로 촬영을 간 적이 있다. 때가 가을이라, 주왕산의 아름다움은 나같이 걸 아름다움엔 딱딱 같은 사람도 기절할 만큼 멋졌다. 그러나 나는 사진을 예쁘게 찍을 줄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왕산의 아름다움을 찍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산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 목사분이야 아직은 사진의 초보자도 안 되는 분이라, 뭐를 찍든지 나는 관심도 안 갖고 있었는데, 한참 주변을 어슬렁, 두리번거리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산은 참 좋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구먼.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듯 하는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나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산의 아름다움은 알겠지. 그 절에 살고 있는 이교도(가들)들은 구원을 못 받으니 불쌍하다는, 지극히 목사(가들)다운 이 말이 왜 내 가슴에 있던 불빛이 모두 꺼져버리는 듯 캄캄해지는 걸까? 산의 걸 아름다움



해남 대둔사 참계루 벽면

권에 들어와 200여 년이 된 기독교가 아직도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비교해 본다면, 불교 교리의 탄력성이 기독교에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 내가 '절'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절에 가면 편하다.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예전부터 살던, 아주 낯익은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서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란 걸, 나는 절을 다니며 알았다. 그래서 절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얼'이다. 우리의 '얼', 우리의 문화가 절의 곳곳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일을 되찾기 위해 안달이 난 내가 절을 다니며 사진을 찍지 않으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절은 우리 문화의 보고다. 잃어버린 우리 일을 찾아 나는 절을 다니다. 잃어버린 나의 심성이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감성이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감성이, 그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전성

사진가 전성은 '우리 얼 밝히는 사람들'에서 18년 동안 절 사진을 찍어 왔고,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동아일보사 동아문화센터에서 사진을 가르치고 있다.

낯익은 '우리의 얼'이 있고  
잃어버린 심성 찾을 수 있어

은 가슴에 외 닿았는데, 그 속에 깊이 속살을 이루어 있는 참 삶의 '나'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목사(가들)의 인목이 내 가슴을 메어오는 게 아닐까?

나는 사진을 찍고 가르치는(사진을 가르친다) 사진은 가르치는 게 아니지!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난 누구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 이것은 차를 탈할 기회가 있겠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집을 찍는 것이라 별다른 바 없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절'을 찍는다면, 우선은 대개가 신기해하고, 이상해한다. 그리고 기독교인, 그것도 소위 믿음(가)이 좋다고 하는 이들은 대개 이맛살을 찡푸리는 때가 많다. 그리고 묻는다. 왜 하필이면 절을 찍지? 그때 나는 반문한다. 절을 찍으면 왜 안 되지? 절이 무슨 죄라고? 글썄, 난 그게 당회 이해가 안 간다.

구태여 어렵게 문자 쓰며 '다원문화시대'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각기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문화에까지 배타적인 '심보'를 가져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종교적 신념일까? 그러나 종교적 신념과 그 문화의 차이를 구별할 줄 모르는 데서 그런 '박힌 사고'가 행(가)하는 게 아닐까? 나의 생각으로, 종교는 꼭 자유스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독트린 또는 제도화될 때 인간의 사고를 석고화 시키고 무한히 넓고 넓어질 자유스런 인간의 의식세계를 그릇에 담아 경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아니 발생하면서부터 타 문화권의 수용능력이 자유자재였다. 그러므로 불교 문화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자산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절을 다녀 보면서 크게 깨닫고 느낀 점이다. 이것을 한국 문화

# 우리글로 탄생한 '법보'



현대불교신문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글대장경 봉안전을 장경각, 법보신앙의 활성화와 함께 제작된 이 장경각법당에 설치할 경우 법보(法報)는 물론 신앙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동국역경원과 손잡고 2001년 한 해 동안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 ■ 한글대장경 읽기 운동

#### 독후감 공모 시상·스티커 배부

32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성된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된 법보다. 그러나 불자들이 대장경을 읽지 않는다면 숭한 난관을 헤치고 만들어진 한글대장경은 빛을 잃는다. 대장경을 읽는 것은 불자의 길을 걷는 가장 기본적인 신행이란 측면에서 대장경 읽기 운동은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글 대장경 읽기 운동을 위해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 독후감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또 캠페인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 및 보급, 대장경 신앙에 대한 기회기사 발굴, 대장경 읽기 동아리 구성 등도 전개한다.

### ■ 한글대장경 봉안 봉사

#### 장경각 보급... '1불자 1권 봉안'

대장경은 법신불이다. 사찰에 대장경을 모시는 것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님의 법을 모시는 일이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사찰이 대장경 봉안 봉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글대장경 전용 장경각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급한다. 장경각은 단순한 서가의 개념을 넘어 법보를 모시는 신앙공간으로 설계 제작했다. 장엄미와 예술성 실용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대장경 전용 장경각은 사찰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장

경각에는 불비나 동산에서 자생해 온 살트리 나무(마아부인) 부처님을 출산할 때 잡았다고 전해지는 성스러운 나무로 현재는 불비나개발위원회에 의해 배양되고 있다. 또한 만든 영주알(佛眼珠)을 내장(內藏)했다. 부처님의 눈, 즉 지혜의 눈으로 한글대장경을 읽자는 의미다.

사찰의 한글대장경 봉안봉사는 한 불자 대장경 한권 봉안하기 운동으로 전개된다. 때문에 사찰은 이 봉사를 통해 법보신앙을 새롭게 형성하고 경제나 및 불자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권력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동국역경 후원회 활성화

#### 2500명 후원금...매월 1회 법회

1995년 창립된 동국역경 후원회(회장 석주 조계종원로스네)는 역경원의 역경봉사를 지원하는 유일한 단체다. 현재 2500명의 회원이 매달 1천원씩을 후원금으로 자동기납부하고 있으며 그간 4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매월 1회씩 법회도 가지며 역경봉사를 후원해 온 역경후원회의 수적인 확장은 역경봉사를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며 매월 순회법회를 개최해 역경후원회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임연태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 011 SK Telecom
-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 016 한통프리텔
-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 019 LG Telecom
-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 017 신세기통신
-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 018 한통엠티컬
-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신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오해를 감성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에  
경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 등 D/B 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